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1강 종이냐 자유인이냐 (갈 5:1)

1.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적이고 의지가 강한 소수의 핵심부 사람들과,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하는 다수의 주변부의 사람들이 있다. 전자는 자기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복음의 기쁨이 없고, 후자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하면서 좌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신앙이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 : 율법과 복음의 혼동

신앙이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율법 = 명령	복음 = 약속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if/then)	“내가 널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because/therefore)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명령 =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약속 =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4. 율법의 궁극적 요구: 하나님의 완전함 (마 5:48)

먼저 율법을 좀 더 살펴보자. 주님께서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고 말씀하셨다. 율법은 외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완전함, 열매만이 아니라 뿌리의 완전함을 요구한다. 주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다. “네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막 12:30~31).” 우리는 얼마나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하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도달할 수 있을까?

5. 율법은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의 실상 곧 죄인의 실패와 절망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최적의 준비다.

6. 복음 =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성취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사권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완전한

의로움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어, 믿는 자들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선언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좌절시킨다. 율법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한다. 사람은 처절하게 자신의 실상을 보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아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인을 복음으로 인도한다. 율법은 우리의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기 의를 갈가리 상처 내고 찢어냄으로써 그 일을 한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성취하려는 자기 노력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된다.

루터가 로마서 1장에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가 그렇게 갈구하던 복음의 자유를 얻었고 누릴 수 있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의 자유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는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였다.

7.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우리의 본성과 양심은 우리를 늘 율법의 윤리적 조건 아래로 끌고 간다.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값싼 만족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기만한다. 이것이 율법의 멍에 곧 종의 멍에 아래 사는 삶이다. 기독교는 우리 자신의 의, 우리 자신이 행한 알량한 선함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더러운 누더기일 뿐이다 (사 64:6). 그러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복음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한 말씀은,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이 정죄하는 종의 멍에를 메는 자리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권면이다.

